『中國學』第77輯 (2021.12.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1.77.77.28
pp.607-624. ISSN : 1229-9618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의 이주 현황과 문화적응 유형*

구 경 모**

【목 차】

1. 서론
2. 연구 방법과 과정
3.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의 이주 배경 및 역사
4.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 현황
5.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
6. 결론

【초록】

본 연구는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는 대만 출신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그것은 파라과이가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은 경제 및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호스트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스페인어 사용 및 종교 활동 등의 친교를 통해 현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중국계 이민자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도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 내의 모국어와 사용과 의례 행위를 통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계 이민자들은 문화적응 유형에서 통합과 분리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국의 문화에 잘 적응

* 이 논문은 2021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교수 (gmgu@bufs.ac.kr)

하면서도 모국의 문화를 지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중국계 이민자, 파라과이, 대만계 이민자, 문화적응 유형, 이주

1. 서론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바탕으로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날로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핑크타이드[1] 물결에 조응하면서 중국 정부는 중남미 국가와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수교가 늘어나는 반면에 대만과 수교하는 중남미 국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갈등은 중남미에서 수교국 쟁탈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나의 중국'에 반대하는 입장인 2016년 차이잉원 대만총통이 집권한 이후 중남미에서 중국의 대만 봉쇄 외교 전략이 거세지고 있다. 그 결과로 2017년에는 파나마, 2018년에는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공화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였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니카라과도 단교하였다. 또한 온두라스는 대만과의 국교 단절 문제가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좌파 성향의 야당 후보인 시오마라 카스트로는 중국과의 국교 수립을 선거 공약으로 쟁점화하고 있다. 중국은 인프라 건설 등의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팬데믹에 따른 백신 지원도 조건으로 내걸면서 파라과이를 비롯한 대만과 수교중인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2]

현재 대만과의 수교국은 총 14개국이며, 중남미에 8개 국가[3]가 몰려 있다. 그 중에서도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국가이다. 파라과이는 1957년 대만과 수교한 이래 대륙 출신의 중국인들의 이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외교 관계가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 가운데 대만 출신 비율이 높은 이유라 할 수 있다.

---

1) 핑크타이트(pink tide)는 21세기 접어들면서 중남미 전역에 불어 닥친 좌파 정부의 집권을 말한다. 당시 중남미의 좌파 정부가 대거 집권한 요인은 신자유주의의 여파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때문이었다. 이 당시 당선된 대표적인 대통령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브라질의 룰라,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부부,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등이 있다.

2) "중국, 중남미 국가에 대만 단교 압박...다음 표적 온두라스", 『아시아투데이』, 2021.11.0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103010001743 [2021.11.03.]

3) 중남미에서 대만과 수교 중인 국가는 온두라스, 벨리즈, 과테말라, 카리브해의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파라과이 등이 있다.

중남미에 중국계 이민자들과 그들의 후손은 페루와 베네수엘라, 브라질, 쿠바,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등 다양한 국가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 수는 페루가 3백만 명[4], 베네수엘라가 40만 명[5], 브라질이 25만 명[6], 쿠바가 15만 명[7], 아르헨티나가 12만 명[8], 멕시코가 7만 명[9], 파나마를 비롯한 중미에 13만 명[10] 정도가 있다. 조사 대상지인 파라과이에는 4만 명[11]의 중국계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파라과이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처럼 중국계 이민자의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계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대만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이 같은 특수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의 이주 역사와 현황,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적 정체성 부분은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및 연구 방법은 데클렌 베리[12]가 활용한 문화적응척도를 차용하였는데, 파라과이의 중국계 이민자 연구와 맞지 않는 측면이 때문에 문화지형웹이라는 보완된 연구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공동연구자인 파라과이 사회과학원의 루이스 오르티스 박사와 설문 조사원 9명이 2018년 7월에 총 55명의 중국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44명은 대만 출신이며, 11명은 대륙(홍콩) 출신이다.

---

4) Tamagno & Velásques, “Dinámicas de las asociaciones chinas en Perú: hacia una caracterización y tipología”, *Migración y Desarrollo*, Vol.14(26), 2016, p.147.
5) Montoya, Miguel, “Diáspora china en América Latina y su vinculación con la República Popular China”, *México y la Cuenca del Pacífico*. Vol.10(29), 2021, p.58.
6) Montoya, Miguel, “Diáspora china en América Latina y su vinculación con la República Popular China”, *México y la Cuenca del Pacífico*. Vol.10(29), 2021, p.59.
7) Kenley, David, “Construyendo una comunidad imaginada en Cuba: Fraternidad/Lianhe, 1938-1944”, En R. Martínez (Coord.), *Estudios sobre China desde Latinoamérica: Geopolítica, Religión e Inmigración*, 2013, p.184.
8) “INTEGRACION SOCIAL La comunidad china en el país se duplicó en los últimos 5 años”, 『Clarín』, 2010.09.27., https://www.clarin.com/sociedad/comunidad-china-duplico-ultimos-anos_0_Syfgy52TDQe.html [2021.09.20.]
9) Montoya, Miguel, “Diáspora china en América Latina y su vinculación con la República Popular China”, *México y la Cuenca del Pacífico*. Vol.10(29), 2021, p.60.
10) Montoya, Miguel, “Diáspora china en América Latina y su vinculación con la República Popular China”, *México y la Cuenca del Pacífico*. Vol.10(29), 2021, p.59.
11) “La realidad de los chinos en Latinoamérica”, 『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de Chile』, 2008.11.11, https://www.bcn.cl/observatorio/asiapacifico/noticias/chinos-en-latinoamerica/[2021.09.20.]
12) Declan, Barry,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Vol.3, No.4, 2001, pp.193-197.

2. 연구방법 및 과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민자의 문화적 적응 양상과 관련해 데클랜 베리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베리는 동아시아계 문화적응척도(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라는 방법론을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분석하였다. 문화적응척도는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통합(integ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동화는 모국의 문화보다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유형이며, 분리는 모국 문화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유형을 말한다. 그리고 통합은 현지와 모국 문화에 모두 잘 적응하는 유형이며, 주변화는 모국과 현지 문화에 모두 적응하지 못한 유형을 말한다.

베리의 연구 이론과 방법을 파라과이의 중국계 이민자 연구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문화지형웹(Cultural Mapping Web)'을 통해 분석하였다. '문화지형웹'(Cultural Mapping Web)은 이민자들의 사용언어(모국어와 현지어), 현지에서의 사회성(친구관계), 모국과의 접촉이나 교류 등과 같은 하위 지표 6개를 이용해 각각의 문화적응척도를 베리가 제시한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통합(integration)과 주변화(marginalization)의 개념을 통해 중국계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양상을 분석하였다. 문화유형과 각각의 분석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문화지형웹의 문화유형과 분석항목[13)]

문화 유형	분석항목
동화 (assimilation)	나는 모국어 보다 현지어 소통하는 것이 익숙하다. 나는 집에 있을 때, 현지어를 주로 사용한다. 나는 현지어로 편지쓰기 것이 가능하다. 나는 주로 현지방송과 음악을 즐긴다. 나는 모국의 전통 보다 현지의 전통문화와 의례(명절)에 익숙하다. 나는 동포 보다 현지인과 더 친밀하다.
분리 (separation)	나는 현지어 구사가 힘들며, 주로 모국어로 소통한다. 나는 집에서 주로 모국어로 말한다.

13) 이 표는 데클랜 베리의 동아시아계 문화적응척도 문항을 본 연구 대상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나는 편지를 모국어로만 쓸 수 있다. 나는 모국의 방송과 음악을 보고 듣는다. 나는 모국의 전통문화와 의례(명절)에 따라 생활한다. 나는 현지인 보다 동포와 더 친밀하다.
통합 (integration)	나는 현지어와 모국어로 모두 소통이 원활하다. 나는 가정내에서 현지어와 모국어를 고루 사용한다. 나는 현지어와 모국어로 모두 편지 쓰기가 가능하다. 나는 현지 및 모국의 방송과 음악도 즐긴다. 나는 현지와 모국의 전통문화와 의례(명절) 모두 지키는 편이다. 나는 현지인과 동포 모두 친밀하다.
주변화 (marginalization)	나는 심도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 나는 집에서 어떤 언어로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현지어와 모국어 모든 편지 쓰기가 힘들다. 나는 현지와 모국의 전통문화와 의례(명절)에 관심이 없다. 나는 현지인과 동포 모두 친밀하지 않다. 나는 현지나 모국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동화와 통합, 주변화, 분리라는 4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각 유형 마다 6개의 분석 항목을 넣었다. 각 유형의 6개 항목은 언어와 사회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언어와 관계된 항목이 3개이며, 사회관계와 관련된 항목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유형의 6개의 항목은 설문조사를 통해 각 항목마다 문화적응의 정도를 조사하는데, 그 정도는 각 항목마다 1부터 10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관련 항목 내용에 해당 사항이 높을수록 10에 가까운 점수를 표기하게 되고, 반대인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표시하게 된다. 이 처럼 각 항목마다 나온 점수를 토대로 각 유형에 대한 빈도를 측정하게 된다. 예컨대 동화와 관련된 항목들의 점수가 높고, 분리와 관련된 항목들의 점수가 낮다면, 조사대상 집단은 모국의 문화보다 현지문화에 대한 적응 및 동화 정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분리와 관련된 항목들의 점수가 높고 동화와 관련된 항목들의 점수가 낮다면, 조사대상 집단은 현지 문화보다 모국의 문화를 고수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2) 연구과정

본 조사와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2017~2018)의 일

환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원래 파라과이내의 동아시아계 이민자인 한국과 중국, 일본 이민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지만, 이 연구는 중국계 이민자에 대한 조사 내용만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는 수도인 아순시온에서 실시되었다.

연구 내용은 파라과이 사회과학연구원 루이스 오르티스(Luis Ortiz) 박사와 그의 연구팀(아순시온 국립대 정치사회과학부 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2018년 7월 한 달 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설문조사 항목은 성별, 나이, 학력, 출생지, 국적, 직업, 종교, 이민 시기와 영주권과 시민권 여부 등 총 9개의 기초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적응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4개 영역(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의 24개 문항(각 영역마다 6문항)에 대한 척도를 조사하였다.

총 조사 대상은 55명이다. 대만 출신은 44명이며, 홍콩을 포함한 대륙 출신은 11명이다. 성별은 남성이 31명, 여성이 24명이다. 연령대는 10대에서 20대 사이가 25명, 30대에서 40대 사이가 20명, 50대에서 60대 사이가 10명이다. 그리고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이 26명, 대학교 이상 졸업이 29명이다.

3.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의 이주 배경 및 역사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의 이주 배경과 역사를 서술하기에 앞서, 중국계가 중남미로 이주한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남미에 최초의 중국인이 당도한 것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온 마닐라 갈레온 무역(Galeón de Manila)을 통해서였다[14][15]. 갈레온 무역은 지금의 멕시코 베라크루즈와 필리핀의 마닐라를 잇는 교역 루트였다. 이 무역을 통해 중남미의 은이 마닐라를 거쳐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반대로 중국은 도자기 등의 물품을 중남미로 보냈다. 이러한 무역 과정을 통해 중국의 상인들과 노동자들이 중남미로 건너 간 것이다.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거래했던 노예제가 19세기 초에 철폐되자, 중남미에서는 노동력 메우기 위해 중국계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중국계 이민자들은 쿠바와 카리브해의 사탕수수와 목화 등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별 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막노동을 하였는데, 주로 이들은 중국의 광동성과 저장성, 복건성 출신의 청년과 농민들 이었다[16].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 까지 중국계 이민자들은 페루와 멕시

14) Vilchez, Haydeé, “Hacia una Nueva Diversidad: Migraciones Asiática en América Latina”, *Tiempo y Espacio*, vol.26(65), 2016, p.106.

15) Menéndez, Yrmina, “De los barrios chinos en Latinoamérica y el Caribe”, *RUMBOS TS*, año XVI, Nº 24, 2021, p.215.

16) Vilchez, Haydeé, “Hacia una Nueva Diversidad: Migraciones Asiática en América Latina”,

코, 중미지역 등지에 철도 건설 노동 혹은 상업에 종사하였다.[17][18]

중국계 이민자가 어떻게 파라과이에 처음으로 정착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인접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거쳐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브라질에서는 식민지 때부터 중국계가 정착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계 노동자들을 마치 노예처럼 당시 브라질의 농장으로 데려왔으며. 그 이후에도 홍콩과 광동성 등지에서 중국계가 꾸준하게 브라질에 정착하였다.[19] 기록으로 알려진 바로는 19세기 초에 400명의 중국계가 차를 재배하기 위해 계약노동자로 들어왔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19세기 말에는 상파울루에 처음으로 식당을 열었다[20]고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14년 인구센서스 기록에서 수백 명의 중국계 남자들이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21]. 이 기록을 보아 이미 그 이전에 중국계가 아르헨티나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남자들만 있었다는 기록을 보아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는 철도 부설을 위해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계 이민자들도 노동자로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계도 이런 맥락에서 노동자 신분으로 이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두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보면, 파라과이에는 같은 언어권인 아르헨티나에서 정착했던 중국계가 다시 파라과이로 재차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파라과이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없던 시기에 중국계 이민자가 바로 파라과이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유사한 시기에 파라과이에 이주했던 유럽계 이민자들의 사례를 보면, 철도 노동자로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후에 다시 파라과이로 건너온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중국계 이민자들도 비슷한 경로를 거쳐 파라과이에 정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파라과이에 중국계 이민자들이 늘어난 것은 마오쩌둥에 의해 중국 공산당이 집권

Tiempo y Espacio, vol.26(65), 2016, p.106.

17) Kenley, David, "Construyendo una comunidad imaginada en Cuba: Fraternidad/Lianhe, 1938-1944", En R. Martínez (Coord.), *Estudios sobre China desde Latinoamérica: Geopolítica, Religión e Inmigración*, 2013, p.183.

18) Montoya, Miguel, "Diáspora china en América Latina y su vinculación con la República Popular China", *México y la Cuenca del Pacífico*. Vol.10(29), 2021, pp.56-57.

19) Montoya, Miguel, "Diáspora china en América Latina y su vinculación con la República Popular China", *México y la Cuenca del Pacífico*. Vol.10(29), 2021, p.58.

20) Benavides, María, "Análisis comparativo de estudios de caso: inmigrantes chinos en Sao Paulo, Brasil, y Lima, Perú", Congresso ALADAA: *Cultura, Poder e Tecnologia: África e Ásia face á Globalizacão*. Anais. Coordenacão Beluce Bellucci, Edicão Edson Borges, 2002, pp.1-2.

21) Grimson & NG & Denardi, Las organizaciones de inmigrantes chinos en Argentina, Migración y Desarrollo, vol.14(26), 2016, p.23.

하기 시작한 1949년 이후 부터였다. 이때는 파라과이뿐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중국계 이민자들이 점차 증가한 시기[22][23]이다. 중국 내부의 공산당에 반감을 가진 대륙 출신들과 중국의 위협으로 부터 멀리 벗어나기 위한 대만 출신의 이주자가 늘어나는데, 이 시기를 '중국 이민의 물결'이라 부른다.[24][25]

공교롭게도 파라과이는 이 시기에 반공주의를 기치로 내건 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잡았다. 당시 파라과이는 리베랄당(Partido Liberal)이 여당이었으나, 콜로라도당이 미국의 반공주의 정책에 힘입어 집권하게 되었다. 그리고 35년간 집권한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Afredo Stroessner)이 1954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파라과이는 반공주의를 기틀을 공고하게 다지게 된다. 반공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따라, 파라과이와 대만은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1957년 파라과이는 대만과 수교를 맺게 된다.

수교 이후, 홍콩을 제외한 대륙 출신들은 파라과이로 바로 이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이때부터 파라과이에는 대만 출신의 중국계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파라과이로 이주한 대만 출신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였는데, 특히 대만에서 발달한 산업인 화훼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 이들은 화훼 이외에도 수도의 4시장(mercado 4)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에서 음식점과 슈퍼, 그리고 전기전자 관련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파라과이 제 2의 도시로 브라질과 국경과 마주하고 있는 시우닫 델 에스테(Ciudad del Este)에도 대만 출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대만 출신 이민자들과 관련된 파라과이의 주요기관으로는 교육과 국제협력, 무역과 관련된 기구들이 있다. 먼저 교육 부분에서는 1985년 이민자 후손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파라과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4시장 인근에 설립한 장개석학교(Colegio privado Chiang Kai Shek)가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Covid-19로 인한 재정난으로 35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2020년 6월에 폐교하였다[26]. 양국의 교류 기구

---

22) Benavides, María, "Análisis comparativo de estudios de caso: inmigrantes chinos en Sao Paulo, Brasil, y Lima, Perú", Congresso ALADAA: *Cultura, Poder e Tecnologia: África e Ásia face á Globalizacão*. Anais. Coordenacão Beluce Bellucci, Edicão Edson Borges, 2002, p.2.

23) Grimson & NG & Denardi, Las organizaciones de inmigrantes chinos en Argentina, Migración y Desarrollo, vol.14(26), 2016, p.23.

24) TreJos, Bernardo & Nora Chaing, "Young Taiwanese Immigration to Argentina: the Challenges of Adaptation, Self-Identity and Returning", *International Journalof Asia Pacific Studies,* Vol.8(2), 2012, pp.113-143.

25) Bretal, Eleonor, ""Ay, este chino habla castellano!". El caso de los jóvenes inmigrantes de origen taiwanés en la ciudad de La Plata", *Jornada de Sociología*, núm. 4, 2005, pp.1-16.

26) "Colegio Chiang Kai Shek anuncia cierre definitivo tras 35 años",『ultimahora』, 2020.06.11, https://www.ultimahora.com/colegio-chiang-kai-shek-anuncia-cierre-definitivo-35-anos-n2889721.html [2021.10.22.]

는 파라과이-대만의 우정과 협력 협회(Asociación Paraguayo-Taiwanesa de Amistad y Cooperación, APTAC)가 있으며, 무역 관련 기구는 파라과이-중국(대만)의 산업 및 교역 위원회(Cámara de Comercio e Industria Paraguayo-China(taiwán))가 있다.

4.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 현황

파라과이의 중국계 이민자들은 1957년 대만이 파라과이와 수교한 이후 대만계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각 이민 시기에 따라 문화적응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55명의 설문 조사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 55명 중 대만 출신은 44명, 대륙 출신(홍콩 포함)은 11명으로 대만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륙 출신은 1957년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로서 불법 체류자거나 다른 3국을 경유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 파라과이에 정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불법체류자는 없었다.

대륙 출신자들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6명은 파라과이 출신이며, 3명은 홍콩, 2명은 각각 중국의 상해와 장수 출신이다. 상해와 장수 출신은 각각 대만과의 수교 전인 1957년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조사대상자 중에는 1957년 이후에 대륙에서 파라과이로 이주한 이민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계 이민자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로서 성별 및 나이, 이민 시기 및 배경, 출생지, 직업, 학력, 국적, 종교 등 총 9가지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성별과 나이, 학력은 앞선 장에서 서술하였고, 여기서는 6가지 항목을 통해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먼저 이민 시기 및 배경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민 시기는 크게 1945년 전후로 나누었고, 세부적으로는 1945년 이후를 총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다, 첫 번째 시기는 1946년~1959년이며, 두 번째 시기는 1960년~1980년, 세 번째 시기는 1981~2000년, 네 번째 시기는 2001년~2017년이다. 이민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양국이 수교하기 전에 간헐적으로 존재했던 이민자들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각 시기별 단계는 20년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마지막 시기는 조사 당시가 2018년이었기 때문에, 2017년까지로 정하였다.

<표2> 시기별 이민자수

시기	이민자수	
	대만 출신	대륙 출신(홍콩 포함)
1945년 이전	-	2
1946년~1959년	3	1
1960년~1980년	11	6
1981년~2000년	21	1
2001년~2017년	9	1
합계	44	11

시기별로 보면, 1960년~1980년과 1981년~200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이주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1960년~1980년은 대만과 파라과이의 수교 영향으로 이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1980년~2000년은 대만 출신 이민자들이 파라과이 사회에 안착하면서 고국의 가족과 친지들의 이주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는 조사한 이민 배경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가족이나 친지를 따라 이주한 경우는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제적 요인은 24건을 차지하였다. 소수의견으로는 학업과 기타 의견이 각각 2건, 종교가 1건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강제이민이 1건 있었다. 이 경우는 대륙 출신으로서 중국이 공산화 되면서 타의적으로 이주한 사례이다.

중국계 이민자들의 출생지는 파라과이가 28명, 대만 및 대륙이 27명으로 나타났다. 대만 출신 이민자 중 파라과이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절반에 해당하는 것은 그만큼 이민 세대가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만계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이 2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민자들의 출생지는 이민자들의 이민 배경과 직업과도 연결이 된다. 파라과이에 태어난 이민자들은 출생지가 수도권과 제 2도시로 한정적인데 비해, 대만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은 그 출신 도시와 지역이 다양하다.

파라과이에서 태어난 대만계 이민자들의 출생지는 대다수가 아순시온이며 그 다음으로 사우닫 델 에스테, 페르난도 데 라 모라, 아레구아 순이다. 대만과 대륙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의 출생지는 타이베이와 가오슝, 타이난, 타오위엔, 장화, 타이중, 홍콩, 상해, 장수 등이 있다. 대만과 대륙에서 출생한 이민자들의 출신지가 다양함에 비해 파라과이 출신은 몇몇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민자들의 생계 및 직업과 관련이 있다. 아순시온은 수도이며, 페르난도 데 라 모라는 아순시온과 맞닿은 도시로서 두 도시는 모두 수도권에 속한다. 또한 시우닫 델 에스테는 파라과이의 제 2의 도시이며 상업이 발달된 곳이다.

이민자들은 이주의 요인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적 요인이 이민의 주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기 비교적 쉬운 대도시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만 출신 이민자들의 직업 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표3> 직업

	이민자수	
	대만 출신	대륙 출신(홍콩 포함)
상업	17	1
전문직	6	1
회사원	5	1
학생(대학생 포함)	4	5
기타	12	3
합계	44	11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상업은 현지에서 언어적 장벽이 비교적 덜 하기 때문에 초기에 선택하는 직업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상업에는 판매상(vendedor)과 상인(comerciante)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전문직은 치과의사, 교사, 변호사 등이 있었다. 기타에는 음악가와 요리사, 임대업 등이 있었다. 대륙 출신에서 학생의 비율은 높은 것은 대학생의 응답 비율이 높아서 나온 결과이다.

직업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만 출신 이민자들이 상업 중에서도 화훼, 꽃을 파는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순시온 구시가지의 번화가인 팔마거리(Calle de Palma) 혹은 신도시 쇼핑몰 앞에서 주로 장사를 한다. 대만 출신 이민자들이 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대만이 화훼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고국에서 꽃과 화훼 관련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 이후에도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중국계 이민자들은 모두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상태이다. 파라과이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 다만, 중국은 파라과이와 미수교국이지만, 조사대상자들은 제 3국을 통해 파라과이에 정착했거나 대만과 수교 이전에 정착했기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은 상태이다.

<표4> 거주유형

거주유형	이민자수	
	대만 출신	대륙 출신(홍콩 포함)
시민권	24	7

영주권	19	4
단기비자	1	-
합계	44	11

대만과 대륙 출신 모두 시민권의 비율이 영주권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주시기에 따라 시민권과 영주권 비율의 차이가 있다. 이주 시기가 빠를수록 시민권을 취득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민권자의 이주시기를 보면, 대만 출신의 경우 1명 만 제외하고 2000년 이전에 이주하였다. 이는 대륙 출신도 마찬가지 인데, 시민권자 7명 모두가 2000년 이전에 파라과이로 이주한 것을 알 수 있다. 영주권의 경우에는 대만 출신 중 8명이 2000년대 이후 출신이며. 대륙 출신은 1명이다.

이상의 통계를 보면, 중국계 이민자들은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종교 현황과도 일정 부분이 연결이 된다. 대만 종교는 불교가 35.1%, 도교가 33%, 무교가 18.7%, 기독교가 3.9%, 기타종교가 9.3%를 차지하고 있다[27]. 이 통계는 2005년 기준으로 대만의 주요 종교가 불교 및 도교임을 알 수 있다. 대륙 출신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종교를 공식적으로 가질 수 없지만, 공산당 집권(1949년) 전에 이주했거나, 홍콩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표5> 종교

종교	이민자수	
	대만 출신	대륙 출신(홍콩 포함)
기독교	19	4
불교	5	2
도교	4	-
무교	16	5
합계	44	11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대만과 대륙 출신 모두 기독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들이 파라과이에 이주하여 적응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파라과이는 가톨릭 국가이며, 최근에 개신교의 성장도 두드러져 이민자들이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대만 출신은 개신교가 10명, 가톨릭 9명이며, 대륙 출신은 개신교가 3명, 가톨릭이 1명이다. 무교는 불가지론과 무신

27) "BUDDHISM IN TAIWAN", 『World Forum For Buddhism』, https://worldforumforbuddhism.org/buddhism-in-taiwan/ [2021.10.15.]

론으로 나뉘는데, 대만 출신은 무신론이 10명, 불가지론이 6명이며, 대륙 출신은 무신론이 3명, 불가지론이 2명이었다.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에서 도교와 불교 비중이 줄고 기독교 신자가 늘어난 것은 현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계 이민자의 종교가 파라과이의 국교인 가톨릭보다 개신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재밌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은 대다수의 파라과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종교로서 개신교에 비해 파라과이 문화와 깊이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비해 개신교는 새로이 확산되고 있는 종교로서 이민자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에 가톨릭보다 부담감이 적어 중국계 이민자들이 가톨릭보다 개신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신교는 후발 주자로서 신도 확보에 적극적인 것도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에 개신교의 숫자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5.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

베리의 문화적응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한 문화지형웹(Cultural Mapping Web)으로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 55명의 문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각 4개 유형의 6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통합(integration)과 분리(separation)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화(assimilation)이며, 가장 낮은 척도를 보인 것이 주변화(marginalizatio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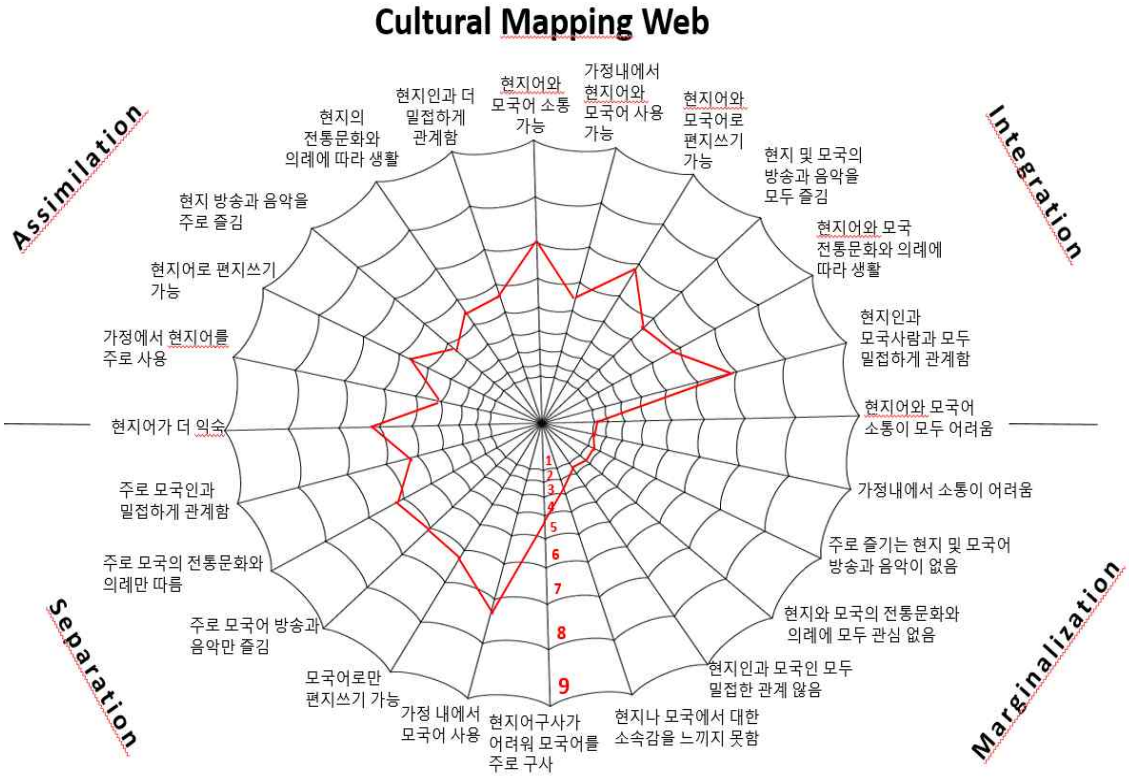
통합은 총 6개 항목의 평균이 6.3점이며, 분리는 5.9점으로 나왔다. 두 유형간의 차이는 0.4점으로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화는 5,3점이며, 주변화는 1,7점으로 아주 낮게 결과가 나왔다. 통합과 분리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통합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다. 통합과 분리, 동화는 모두 5점 이상이었지만, 주변화는 1점대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중국계 이민자들은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현지 문화에도 별 다른 문제없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계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유형의 특징은 앞선 현황 조사 중 종교 분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척도를 나타내는 항목은 분리 유형의 두 번째 항목인 “가정내의 모국어 사용”으로 7.3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척도를 보인 항목은 통합 유형의 첫 번째 항목인 “현지어와 모국어 소통 가능”으로 7.1점이다. 중국계 이

민자들은 현지 적응의 첫 번째 요소인 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 능통함을 보이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모국어를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계 이민자들이 현지에 어느 정도 적응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는 경향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림1> 문화지형웹



이러한 중국계 이민자들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동화가 통합과 분리보다 그 척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화의 두 번째 항목인 “가정에서 현지어를 주로 사용”이 3.9점으로 동화의 6개 항목 중 가장 낮게 나온 것을 봐도 중국계 이민자들의 모국 문화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계 이민자들은 통합과 분리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국의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도 모국의 문화를 지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적인 경향은 경제 및 다양한 활동을 위해 호스트 사회인 파라과이에 적응하는 노력으로서 나타나며, 그것은 현지어인 스페인어 사용과 종교 등의 친교 관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리적인 경향은 중국계 이민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면에서 잘 드러났는데, 그것은 가정 내

의 모국어와 사용 및 의례 행위를 통해 주로 표출되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베리의 문화적응척도를 차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베리의 문화적응척도는 미국의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과 설문 내용 등을 파라과이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문화적응 유형의 결과는 문화지형웹(Cultural Mapping Web)을 통해 4개의 문화유형과 24개의 항목의 척도를 도출하였다.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는 대만 출신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는데, 그것은 파라과이가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파라과이의 중국계 이민자들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이민 역사가 길지 않으며, 가장 오래된 이민 세대가 3세대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는 중남미의 페루와 멕시코, 그리고 이웃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중국계 이민자 역사에 비하면 짧다고 볼 수 있다.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은 통합 유형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것은 중국계 이민자들이 모국의 문화의 유지와 함께 현지 문화도 잘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분리도 통합과 비슷한 수준의 척도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현지 문화 적응과 별개로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중국계 이민자들은 자신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호스트 사회와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코로나로 작년에 폐쇄되었지만, 장개석 학교 등 이민 후속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의 존재는 중국계 이민자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온 원동력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장개석 학교가 Covid-19에 의해 경영난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계 이민자들, 특히 후속 세대들이 모국어를 이전 세대와 달리 어떻게 익히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앞선 연구결과에서도 언급했듯이 모국어는 이민자를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동아시아권 문화인 한국계와 일본계 이민자 사례와 비교한다면, 중국계 이민자들의 문화 적응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두 국가의 경우에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의 유무가 문화적응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장기적으로 관찰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Kenley, David, "Construyendo una comunidad imaginada en Cuba: Fraternidad/Lianhe, 1938-1944", En R. Martínez (Coord.), *Estudios sobre China desde Latinoamérica: Geo política, Religión e Inmigración*, 2013.

<논문>

Declan, Barry,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Vol.3, No.4, 2001.

Grimson & NG & Denardi, "Las organizaciones de inmigrantes chinos en Argentina", *Migración y Desarrollo*, vol.14(26), 2016.

Henrique Altemani de Oliveira & Gilmar Masiero, "Estudos Asiáticos no Brasil Contexto e desafios", *Rev. Bras Polit Int*, No.48(2), 2005.

Montoya, Miguel, "Diáspora china en América Latina y su vinculación con la República Popular China", *México y la Cuenca del Pacífico*. Vol.10(29), 2021.

Menéndez, Yrmina, "De los barrios chinos en Latinoamérica y el Caribe", *RUMBOS TS*, año XVI, Nº 24, 2021.

Vilchez, Haydeé, "Hacia una Nueva Diversidad: Migraciones Asiática en América Latina", *Tiempo y Espacio*, vol.26(65), 2016.

Tamagno & Velásquez. "Dinámicas de las asociaciones chinas en Perú: hacia una caracterización y tipología", *Migración y Desarrollo*, Vol.14(26), 2016.

TreJos, Bernardo & Nora Chaing, "Young Taiwanese Immigration to Argentina: the Challenges of Adaptation, Self-Identity and Retu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 Pacific Studies,* Vol.8(2), 2012.

<기타자료>

Benavides, María, "Análisis comparativo de estudios de caso: inmigrantes chinos en Sao Paulo, Brasil, y Lima, Perú", Congresso ALADAA: *Cultura, Poder e Tecnologia: África e Ásia face á Globalizacão*. Anais. Coordenacão Beluce Bellucci, Edicão Edson Borges, 2002.

Bretal, Eleonor, ""Ay, este chino habla castellano!". El caso de los jóvenes inmigrantes de origen taiwanés en la ciudad de La Plata", *Jornada de Sociología*, núm. 4, 2005.

"중국, 중남미 국가에 대만 단교 압박...다음 표적 온두라스", 『아시아투데이』, 2021.11.0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103010001743 [2021.11.13.]

"INTEGRACION SOCIAL La comunidad china en el país se duplicó en los últimos 5 año

s", 『Clarín』, 2010.09.27., https://www.clarin.com/sociedad/comunidad-china-duplico-ultimos-anos_0_Syfgy52TDQe.html [2021.09.20.]

"La realidad de los chinos en Latinoamérica", 『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de Chile』, 2008.11.11., https://www.bcn.cl/observatorio/asiapacifico/noticias/chinos-en-latinoamerica/ [2021.09.20.]

"Colegio Chiang Kai Shek anuncia cierre definitivo tras 35 años",『ultimahora』, 2020.06.11., https://www.ultimahora.com/colegio-chiang-kai-shek-anuncia-cierre-definitivo-35-anos-n2889721.html [2021.10.22.]

"BUDDHISM IN TAIWAN", 『World Forum For Buddhism』, https://worldforumforbuddhism.org/buddhism-in-taiwan/ [2021.10.15.]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中國移民. 巴拉圭, 台灣移民, 文化類型, 迁居
	영문	Chinese immigrants, Paraguay, Taiwanese immigrants, Acculturation type, Migration

Acculturation Type and Situation of Chinese Immigration in Paraguay

Gu Gyoung-Mo

This study analyzed the acculturation type of Chinese immigrants in Paraguay. The proportion of Chinese immigrants from Taiwan is significantly higher because Paraguay is the only country in South America that has diplomatic relations with Taiwan. Therefore, Chinese immigrants in Paraguay do not have a long immigration history compared to other South American countries, and the oldest immigrant generation is only about three generations. Chinese immigrants are adapting to Paraguay, the host society, for economic and various activities, and it can be seen that this is being done through friendships such as using the local language Spanish and religious activities. In addition, while adapting to the local culture, Chinese immigrants adhere to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e, which is reflected in their mother tongue and usage and rituals in the home.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Chinese immigrants have a strong tendency to integrate and separate. This means that while adapting well to the cultures of both countries,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preserve the culture of the home country.

저 자	구경모 / 具敬謨 / Gu Gyoung-Mo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1.11.20.	심 사 일	2021.11.29.	게재확정일	2021.12.18.